

# 李商隱 詠物詩에 나타난 人生感慨

—詠花詩를 중심으로—

이 주 희\*

— <目 次> —

I. 머리말	1. 詠梅花
II. 불우했던 일생	2. 詠荷花
III. 이상은 영물시의 특징	3. 詠槿花
1. 제재내용: 細小纖柔	4. 詠牡丹
2. 표현기교: 托物寓懷	V. 생명으로의 갈망
IV. 이상은 영물시의 감상	VI. 맺음말

## I. 머리말

이상은(李商隱)은 당(唐) 헌종(憲宗) 원화 7년(元和, 812) 회주(懷州) 하내(河內: 지금의 河南省 沁陽縣)에서 출생하여 선종(宣宗) 대중 12년(大中, 858) 정주(鄭州)에서 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만당(晩唐)의 대표시인이다.

이상은은 일생동안 600여 수의 시를 남겼는데, 영물시는 모두 120 수<sup>1)</sup> 정도로 그의 전체 작품 중 약 1/5을 차지한다. 이렇듯 작품 수만 놓고 보

\* 영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 胡大浚, 蘭甲雲, <唐代詠物詩發展之輪廓與軌迹>《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1996, p.107, 당대 시인들의 영물시 작가 중 100수 이상의 영물시를 남긴 이는 모두 12명인데, 그 중 이상은은 여덟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당대 시인들의 창작 상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이지운, <李商隱詠物詩試論>, 《중국어문학지》, 2005, p.172 주석 재인용)

더라도 그가 영물시 창작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상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애정시와 정치시, 그리고 영사시에 치중되어 왔기에 그의 영물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대개의 말세(末世) 문인들이 그러했듯이 이상은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탄치 않은 인생 역경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일생이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의 시에는 짧은 생애 동안 겪은 갖가지 감회가 잘 반영되어 있다. 반복되는 이상과 현실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시선은 늘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경물보다는 비바람과 풍파에 시달리는 처량한 자연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적 계절인 봄을 맞이하는 태도 또한 남다르다. 즉 새로운 생명을 대하는 기쁨보다는 장차 시들어 버릴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다.

우수어린 눈망울로 사물을 대하고 관찰하여 그 모습을 시로 읊었기에, 그의 시는 독자들에게 침울하고 처량한 인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그의 시에는 단순한 상념과 비애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늘 잔혹한 현실에 부딪쳐 좌절하지만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자하는 집념이 시의 곳곳에 묘사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의 시를 읽으면서 생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껏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미흡했다고 여겨지는 영물시를 대상으로 그 특징과 시 속에 내포된 심미(審美)적 가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영물시의 여러 소재들 가운데서도 꽃을 읊은 시를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작품감상을 통해 이상은의 인생감개와 생명으로의 갈망을 살펴볼 것이다.

白居易	杜甫	陸龜蒙	齊己	李嶠	元稹	皮日休	李商隱	徐夔	韓愈	李白	劉禹錫
341	316	187	145	139	136	135	120	108	105	103	101

## II. 불우했던 일생

이상은 영물시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감개의 근원, 즉 시에 가득 배어있는 감상(感傷)적 시풍(詩風)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그의 일생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은 본래 당(唐) 고조(高祖) 이연(李淵)의 선조인 양무소왕(涼武昭王) 이호(李暹)의 후손으로 자신의 가문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sup>2)</sup>. 그러나 3~4대에 걸쳐 모두 하급 지방관<sup>3)</sup>밖에 지내지 못한 가세(家勢)가 이어져오면서 그는 변변한 재산이나 권세 없는 집안에서 어린시절을 보낸다. 그의 나이 10세가 되던 장경 원년(長慶, 821) 아버지마저 일찍 병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됨에 따라 쓸쓸하고 힘겨운 생활에 처하게 된다.

어린나이에 이미 한 집안의 가장으로의 모든 역할을 담당해야 했기에 좌절하지 않고 항상 가문을 일으키고 정치적 포부를 펼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슴에 품고서 경전(經典)과 (古文)에 정통한 당숙(堂叔)의 지도 아래 글을 배웠다. 시문(詩文)에 재주를 드러내기 시작한 그는 16세에 이미 <재론(才論)>과 <성론(聖論)><sup>4)</sup>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대화 3년(大和, 829) 당숙의 죽음으로 그는 다시 한 번 의지할 친척을 잃게 된다.

그해, 당숙의 훈도(薰陶)이래 쌓아온 그의 재주는 천평군절도사(天平君節度使) 영호초(令狐楚)에게 인정을 받아 막부의 순관(巡官)에 발탁되어 그의 막부에서 변려문(駢麗文)을 배울 기회를 얻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 영호도(令狐綯)와도 함께 어울려 수학할 수 있는 은택도 입게 되었다.

2) <哭遂州蕭侍郎二十四韻>「公先眞帝子, 我系本王孫.」

3) 고조 이섭(李涉)은 미원(美原: 지금의 陝西省 富平縣) 현령을 지냈고, 증조 숙항(叔恒)은 안양(安陽) 현령을 지냈으며 조부 이보(李甫)는 형주(荊州) 녹사참군(錄事參軍)을 지냈다. 또한 그의 부친 이사(李嗣)는 획가(獲嘉: 지금의 河南省 獲嘉縣) 현령을 지냈으므로 그의 집안은 오랫동안 가업이 없고 매우 가난하였다.

4) <樊南甲集序>「樊南生十六能著才論聖論, 以古文出諸空間.」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으로 가득차있던 시인은 「한밤중에 옷을 전해 받은 은혜를 입은 후부터는, 허리에 차는 칼을 얻은 왕상도 부럽지 않았습니니다.」<sup>5)</sup>에서 그는 진대(晉代)에 재상(宰相)을 지낸 왕상(王祥)도 부럽지 않다고 고백함으로써 영호도의 가르침에 감사의 마음을 깊이 드러내보였다.

대화 6년(832) 영호초가 조정의 부름을 받고 막부를 떠난 다음해 처음 응시한 과거에 낙방한 이상은은 화주자사(華州刺史) 최융(崔戎)의 문하로 가서 최융의 도움으로 계속 과거를 준비하였으나 얼마 못가 최융 또한 세상을 떠나고 이상은은 또 다시 의지할 곳을 잃게 되었다.

3번의 과거응시<sup>6)</sup> 끝에 개성 2년(開成, 837) 영호부자(父子)의 도움<sup>7)</sup>으로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관직으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그 해 말 그토록 큰 은혜를 입었던 영호초마저 병으로 죽고 말았다. 이 일로 그는 큰 충격을 받고 크게 낙담한다.

이듬해인 개성 3년(838) 그는 경원절도사(涇原節度使) 왕무원(王茂元)의 막부로 들어가 막료생활을 하다가, 얼마 후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우당(牛黨)과 이당(李黨)이 첨예하게 대립<sup>8)</sup>하고 있

5) <謝書>「自蒙半夜傳衣後 不羨王祥得佩刀」

6) 차례로 문종(文宗) 대화 7년(大和, 833); 문종 대화 9년(835); 문종 개성 2년(開成, 837)이다. (劉學鑑、余恕誠著, 《李商隱詩歌集解》권5 中華書局, 1988, p.2055- )

7) <上令狐相公狀>「저의 재주가 빼어난 것도 아니고 글이 맑고 곱지도 못하는데 다행히 과거급제의 명예를 얻게 된 것은 모두 격려하며 꾸며 주신 덕택입니다. (某才非秀異, 文謝清華, 幸忝科名, 皆由獎飾.)」

8) 「중당 이후 조정에서는 관료의 파벌싸움이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우승유(牛僧孺)를 영수로 한 '우당(牛黨)'과 이덕유(李德裕)를 영수로 한 '이당(李黨)'이 번갈아 집정하는 상황이었다. 영호도는 우당의 주요인물이었으며 왕무원은 당시 이당으로 간주되었다. 이상은은 초기에 영호초의 신임을 받았으므로 비록 당쟁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우당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개성 년간에 이상은이 경원막부에 들어가 왕씨와 혼인하자 사람들은 “집안의 은혜를 저버렸다(背家恩)”, “다른 당에 투항했다(投異黨)”, “간사하고 경박하여 절조가 없다(詭薄無行)”, “이익을 좇아 구차히 투합했다(放利投合)”며 그를 비방하였다. 사실 이러한 질책은 불공평한 것이다. 영호초가 세상을 떠난 후 이상은에게는 막료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출로가 없었을 뿐만 아

는 상황에서 비록 본인은 어느 당에도 편견을 지니지 않았다고 하나, 영호도와 당파를 달리하고 있던 왕무원의 사위가 된 것은 영호초 일파의 은혜를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초심(初審)에 등재 했었던 박학굉사과(博學宏詞科) 시험마저 복심(覆審)에 가서는 낙제<sup>9)</sup>되었다.

개성 4년(839) 봄 예부시서관(禮部試書判)에 참여한 이상은은 합격하여 비서성교서랑(秘書省校書郎)직을 하사받는다. 그러나 바로 홍농현위(弘農縣尉)로 전임되고, 또 얼마 후 죽게 된 죄수를 다시 판결하여 살린 일로 관찰사 손간(孫簡)의 노여움을 사고 관직에서 파면되었다. 얼마 뒤 손간의 일을 대신하게 된 요합(姚合)의 도움으로 다행히 관직을 회복하였으나 홍농위를 사임하게 된다. 「아! 나는 새벽 종소리 듣고 관청으로 출근하러 가야하는데, 말 몰아 비서성으로 나가는 것 마치 떠도는 쭉대와 같다네.」<sup>10)</sup>에서 시인은 총명하고 원대한 뜻을 지닌 자신이 사회적 현실에 부딪혀 제대로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정해진 방향도 없이 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끼는 쭉대마냥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였다.

회창 2년(會昌, 842) 다시 예부시서관에 응시하여 비서성정자(秘書省正字)직을 받았다. 그러나 곧 모친의 별세로 사직하고 3년간 모상(母喪)을 시작하였다. 회창 5년(845)에 지은 「푸른 도포는 풀처럼 해마다 머물러

나라 왕무원의 사위가 된 뒤 혼인관계를 이용하여 권좌에 아부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늘 영호초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호초와 증답하는 시를 지었다. 이덕유는 회창(會昌: 847~859)년간에 공로가 많았던 재상이다. 이상은은 그의 정치적 주장을 옹호하였으며 선종(宣宗: 841~846)이 즉위한 뒤 그가 폄적되자 이를 매우 동정하였지만 이덕유와 접촉했던 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당쟁의 알력은 이상은으로 하여금 온갖 고초를 겪게 하였다.」이병한 외 22인 공저, 《中國詩와 詩人－李商隱》(唐代篇), 사람과 책, 1998.11, p.846.

9) <與陶進士書>「前年乃爲吏部上之書, 歸自驚笑, 又復悞恨. 周李二學士以大法加我, 夫所謂博學宏辭者, 豈容易哉! 天地之災變盡解矣, 人事之與廢盡究矣, 皇王之道盡識矣, 聖賢之文盡知矣, 又而下及蟲豸草木鬼神精魅, 一物已上, 莫不開會, 此其可以當博學宏辭者邪? 恐猶未也. 設他日或朝廷或持勸衡大臣宰相, 問一事, 詰一物, 小若毛甲, 而時脫有盡不能知者, 當其罪矣. 私自恐懼, 憂若因械. 後幸有中書長者曰: “此人不堪.” 抹去之. 乃大快樂曰: “此後不能知東西左右, 亦不畏矣.”」

10) <無題二首·昨夜星辰>「嗟余聽鼓應官去, 走馬蘭臺類轉蓬.」

있고, 흰머리는 실과 같이 날마다 새로 돋는다. 바람과 파도를 따라 천만 리를 가려 해도, 어느 길로 용진에 이를지 알 길이 없다.」<sup>11)</sup>는 적막한 벼슬길과 점차 노쇠해져만 가는 현실을 슬퍼하며 자신이 품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참담함을 토로하였다.

3년 동안의 복상(服喪)이 끝나고 다시 장안(長安)의 비서성 정자직으로 돌아왔지만 선종(宣宗)이 즉위하면서 벼슬길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장안을 떠나 막부생활을 하며 표박한 생활을 시작한다. 대중 원년(大中, 847)부터 대중 9년(855)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 그는 차례로 계주(桂州)의 계관관찰사(桂管觀察使) 정아(鄭亞), 서주(徐州)의 무녕절도사(武寧節度使) 노홍지(盧弘止), 재주(梓州)의 동천절도사(東川節度使) 유중영(柳仲郢) 등 막부의 막료로 광서성(廣西省), 사천성(四川省), 강소성(江蘇省) 등지를 떠돌아다니며 대부분의 생활을 막부에서 보냈다.

가족을 떠나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막부생활을 하던 중 대중 5년(851) 아내 왕씨마저 이상은 곁을 떠난다. 이상은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여러 편의 도망시(悼亡詩)를 짓는다. 「떠오르는 것은 제작년 봄 이별할 때, 차마 말 못하며 슬퍼하던 당신 모습이라네. 지금 돌아왔으나 이미 그 모습 볼 수 없고, 수놓인 거문고만 사람보다 오래도록 남았네.」<sup>12)</sup>에서 우리는 오랜 그리움과 상념을 참아가며 홀로 지내야만 했던 아내에 대한 시인의 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대중 12년(大中, 858) 관직을 그만두고 병든 몸으로 고향인 정주로 돌아온 그는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구국구민(救國救民)의 숙원을 포기하지 않고 「낮이 짧아 갑자기 어둠이 내리고, 늙어서는 점점 기력이 다해가네. 어찌해야만 나라를 구할 본문을 다하려나, 현실은 항상 나의 염원과 어긋나기만 하는구나.」<sup>13)</sup>라는 시편을 끝으로 가슴에 응어리진 한(恨)을

11) <春日寄懷>「青袍似草年年定, 白髮如絲日日新. 欲逐風波千萬里, 未知何路到龍津.」

12) <房中曲>「憶得前年春, 未語含悲辛. 歸來已不見, 錦瑟長於人.」

13) <幽居冬暮>「急景忽云暮, 頽年寢已衰. 如何匡國分, 不與夙心期.」

가슴에 품은 채 47세로 병사(病死)하였다.

천부적 재능을 지닌 인재로서 그는 자연히 청운(靑雲)의 꿈을 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집안의 형편, 가족 그리고 지기(知己)들과의 이별,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벼슬길 등의 반복되는 좌절로 시인의 인생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스로가 「예부터 재능과 운명 두 가지는 서로 상치된다.」<sup>14)</sup>라고 읊은 구절은 어쩌면 자신이 인생경험에서 나온 한탄(恨歎)이라 할 수 있겠다.

### Ⅲ. 이상은 영물시의 특징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시 속에 나타난 처량(淒涼)하고 애절(哀絶)한 감상(感傷)적 시풍(詩風)은 이상은의 불우했던 인생에 그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모순 속에 방황을 거듭하며 오랜 실의(失意)와 표박(漂泊)의 생활을 충분히 경험한 그는 시를 통해 남의 막부를 전전하는 떠돌이 같은 나그네 신세를 면치 못하며 느낀 신세의 처량함과 고독감을 표현해내었다.

#### 1. 제재내용: 細小纖柔

이상은은 항상 이상(理想)을 실현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지만 희망은 항상 바라보이는 곳에 있을 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다. 덧없이 짧은 인생과 나를 인정해주는 이 아무도 없는 고독한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시인은 자신이 빛을 잃고 매몰되어 영원히 기억속에서 잊혀지는 것을 깊이 근심하였다. 그의 가슴 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슬픈 상념을 기탁하기 위해 시인은 주로 자그마하고 힘이 없으며[纖細弱小] 고독하고 외로우며 처량하기[孤寂淒涼]까지 한 경물을 선별하여 시를 창작했다. 영물시

14) <有感> 「古來才命兩相妨」

(詠物詩)는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된 시체(詩體)로 생명이 시들어 본연의 아름다움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움과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알아 줄 이를 찾을 수 없는 오랜 고독감을 표현해내었다.

「제재 선별에 있어 이상은 영물시의 영물 대상은 대부분 자연계와 일상 생활에서의 자그마하면서도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물에 속한다. 그 예로 동물 중에는 매미, 벌, 나비, 피꼬리, 제비, 원앙이 있으며; 식물 중에는 벚꽃, 벚꽃, 무궁화, 살구꽃, 복숭아꽃 등과 같은 연약하여 쉬이 시들어버리는 꽃이 있으며; 자연현상 중에는 가랑비, 보슬비가 있으며; 일상생활 중의 눈물, 창자, 등잔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벚꽃을 읊은 시는 열다섯 수가 넘는다. 거대하면서도 웅장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숭고한 사물을 읊은 것은 극히 드물다. 그의 시집에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읊은 것도 단지 세 수 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한 수는 역시 작은 소나무를 읊은 것이다. 비록 고고한 소나무가 전통적인 영물시에서는 숭고하면서도 곧고 강직한 품성을 상징하는 사물이긴 하지만 이상은의 붓 아래서는 여전히 한가하고 고요하며 그윽하고 품위 있게 표현된다. “객이 돌아가고 날이 갠 뒤, 스님 오시고도 아무 말 없을 때라네. 바람 불어 고아한 운치를 전해오나, 눈 내리지 않아 그윽한 자태만 시험받네.” 이것은 이상은의 심미적 개성을 매우 전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sup>15)</sup>

그러기에 그의 시에 나타난 서식할 곳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짐승<sup>16)</sup>, 서편으로 기우는 은은한 석양<sup>17)</sup>, 밤 하늘 홀로 떠 있는 밝은 달<sup>18)</sup>, 생명이

15) 「從題材上看, 他的這類作品所詠之物多屬自然界與日常生活中一些細小纖細柔的事物, 如動物中的蟬、蜂、蝶、鶯、燕、鴛鴦, 植物中的柳、櫻桃和槿花、杏花等弱質易凋之花, 自然現象中的細雨、微雨, 日常生活中的淚、腸、燈等。其中柳詩多達十五首, 很少詠松、柏的僅三首, 其中一首還是小松。即使是高松這種在傳統的詠物詩中多象征崇高貞剛品性的事物, 在他筆下也顯得閑靜幽雅。 “客散初晴後, 僧來不語時。有風傳雅韻, 無雪試幽姿。” 這相當典型地表現了其審美個性。」劉學鐸著, 《李商隱詩歌研究》安徽大學出版社, p.21.

16) <蟬>, <北禽>, <流鶯> 등.

17) <樂遊原·向晚意不適>, <樂遊原·萬樹鳴蟬> 등.

18) <嫦娥>, <月> 등.

다하여 시들어 떨어지는 꽃잎<sup>19)</sup> 등 모두 슬프고 처량한 이미지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다.

流鶯漂蕩復參差	가지 옮겨가며 우는 피꼬리 들쭉날쭉 날다가,
渡陌臨流不自持	밭고랑 넘어 물가에 이르러 어쩔 줄을 모른다.
巧轉豈能無本意	정교한 지저킴에 어찌 본래의 품은 뜻 없겠는가만,
良辰未必有佳期	좋은 시절이라고 반드시 좋은 기약 있는 건 아니라네.
風朝露夜陰晴裏	바람 부는 아침과 이슬 내린 밤, 흐린 날과 맑은 날,
萬戶千門開閉時	만호의 집 천 개의 대문 여닫을 때 울어대는구나.
曾苦傷春不忍聽	봄 가는 슬픔에 괴로워 차마 듣지 못하는데,
鳳城何處有花枝	장안 어디에 등지 틀 꽃가지가 있으려나?

-<가지 옮겨 나는 피꼬리(流鶯)>

이 시는 몸 하나 의지할 가지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쓸쓸한 울음을 멈추지 않는 피꼬리의 모습은 바로 넓은 천지 속에 머물 곳이 없어 방황하며 떠돌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외롭고 처량한 시인 자신의 모습을 가리킨다. 가는 봄을 슬퍼하며 애절히 울어대지만 봄을 잡아들 수 없는 앵무새의 처지는 또한 바로 아무런 이룬 것 없이 가버리는 무심한 세월의 흐름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와 같다.

## 2. 표현기교: 托物寓懷

이상은 영물시의 대부분은 영물(詠物)의 형식을 빌어 개인적인 신세를 기탁하고 인생에 대한 감개, 즉 이루지 못한 젊은 날의 이상과 포부에 대한 미련, 떠도는 막부 생활에서 오는 미래의 불확실성, 죽은 아내에 대한 슬픔과 고독감 등을 기탁하였다.

「이상은의 사물을 빌어 감정을 기탁한 내용의 개성화는 그가 흔히 사용

19) <落花>, <花下醉> 등.

하는 슬픈 눈길과 심리로 사물을 관찰하고 느끼기에 사물에 농후한 비극적 색채를 부여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일반인들의 인상에 비극적인 색채를 띠지 않는 많은 사물들도 이상은의 붓끝에서는 역시 짙은 비극적 색채를 띠게 된다.」<sup>20)</sup>

또한 구체적인 사물의 묘사를 대폭 생략한 채 주관적인 시인의 감정 표현에 더 중점을 두어 시인의 내적 감성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高閣客竟去,	높은 누각의 손님 마침내 떠나버리고,
小園花亂飛.	작은 동산엔 꽃잎 어지러이 흩어진다.
參差連曲陌,	이리저리 훑날리며 굽이진 밭둑까지 이어져,
迢遞送斜暉.	아득히 먼 곳으로 지는 석양을 떠나보낸다.
腸斷未忍掃,	창자 끊일 듯한 슬픔에 차마 쓸지 못하고,
眼穿仍欲稀.	뚫어져라 바라보지만 여전히 드물어져만 간다.
芳心向春盡,	꽃을 그리는 마음 봄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所得是沾衣.	얻은 것이라곤 옷깃에 떨어진 꽃잎뿐이다.

-<떨어지는 꽃(落花)>

이 시는 회창 6년(會昌, 846) 이상은이 모친상을 당한 후 영락(永樂)에 머물던 시기에 지은 것이다. 그렇잖아도 아름답던 봄날이 다해가는 즈음이라 시름에 겨운데, 가지에 달린 얼마 남지 않은 꽃잎마저 하나 둘 떨어지는 정경을 묘사하여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시인은 상춘객이 모두 떠난 뒤, 적막으로 둘러싸인 텅 빈 정원 가득히 떨어진 꽃에 바라보며 가지에 가냘프게 달려 있는 몇 남지 않은 꽃잎으로 시선을 고정하면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깊은 아픔에 빠지게 된다. 안타

20) 「李商隱托物寓懷詩內容的個性化，與他常常用特有的悲劇眼光、心態去體察、感受事物，從而賦予物濃鬱的悲劇色彩密切相關……許多在一般人印象中並不具悲劇色彩的事物，在義山筆下，也染上了濃重的悲劇色調。」劉學鐸，《李商隱詩歌研究》安徽大學出版社，1998，pp.24-25.

까운 마음에 꽃잎이 더 이상 떨어지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간절함에도 이렇듯하지 않고 가지 위에 남은 향기 잃은 꽃잎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만 간다. 향기 잃고 시들어 떨어지는 꽃잎의 처량한 모습은 젊은 날의 활기를 잃고 점차 늙어가는 시인의 모습과 하나가 되고, 옷깃에 떨어진 꽃잎은 봄이 가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시인의 눈물과 하나가 된다.

「시인은 종종 주된 감정을 영물 대상으로 옮겨놓아, 그것이 감정과 사상이 있는 ‘인격화’된 사물이 되게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감개도 아주 잘 기탁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영물시의 수준을 훨씬 능가한 것이다.」<sup>21)</sup>

외적 사물과 내적 정감의 결합이 극히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진 것 또한 바로 이상은의 시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IV. 이상은 영물시의 감상

이상은은 일생동안 모두 600여 수의 시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 영물시는 대략 전체시의 1/5을 차지하는 120여 수에 달한다. 오혜민(吳惠敏)에 조사에 따르면 이상은의 영물시 가운데 꽃을 노래한 시의 수가 가장 많다.<sup>22)</sup>

모든 아름답지만 또 쉬이 사라져버리는 사물들은 이상은의 붓 아래서 모두 감상적 의상으로 그려진다. 꽃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도 같은 것이다. 처음 피어날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시

21) 「李商隱把主觀感情多入吟詠對象，使它成爲有感情、有思想的“人化”了的物，從而更好地寄寓作者的身世之慨。這就大大超過了一般詠物詩的水平。」吳奕舜、余恕誠《唐代文學史》(下篇)，人民文學出版社，pp.387-388.

22) 「不僅涉花詩作量多，而且花意象已成爲義山詩表情達意的一個極爲重要的手段。」吳惠敏，《穿越花林的感傷 - 李商隱詩歌側論》淮南工業學院學報，2001.

간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감에 따라 꽃은 점점 시들어 하나 둘 떨어진다. 안타까운 마음에 「거듭 읊으며 조심스레 음미하나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이미 졌으나 피어있는 듯 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sup>23)</sup>

시인은 항상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감성으로 꽃들을 대하게 되고, 또한 꽃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통해 다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일찍 피서 먼저 저버리는 매화[先期零落的梅花]’, ‘가을비 오고 난 뒤 말라 떨어진 연꽃[秋後枯敗的荷花]’,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저버리는 있는 무궁화[朝開暮萎的槿花]’, ‘비에 맞아 꽃잎 떨어지는 모란[爲雨所敗的牡丹]’ 등의 꽃에는 모두 이루지 못한 젊은 날의 꿈과 포부에 대한 미련이 표현되어 있다.

### 1. 詠梅花

예로부터 매화는 난초[蘭], 국화[菊], 대나무[竹]와 함께 사군자로 불리는 꽃으로 묵객(墨客)의 붓끝에서는 항상 눈서리 날리는 싸늘한 날씨 속에서도 온갖 어려움과 모진 시련을 극복하고 언제나 고운자태를 뽐내며 그윽한 향기를 피워내는 고결한 형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상은이 매화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그의 시 속에 그려진 매화의 형상은 더 이상 차가운 겨울에도 홀로이 절개를 지키는 절사(節士)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겨울 홀로 꽃을 피우고는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오자 저버리는 고독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匝路亭亭艷,	길가를 두르며 피어난 아름다운 매화,
非時裊裊香.	때도 아닌데 짙은 향기 피워내는구나.
素娥唯與月,	소녀도 그저 밝은 달빛만 비추어주고,
青女不饒霜.	청녀는 서리를 거두어가지 않는구나.
贈遠虛盈手,	가지 꺾어 먼 곳에 부쳐 부질없이 손 흔드니,

23) <即日>「重吟細把眞無奈, 已落猶開未放愁.」

傷離適斷腸. 슬픈 이별은 애간장 끊이게 하기에 족하구나.  
 爲誰成早秀, 대체 누굴 위해 이토록 일찍 꽃을 피웠느냐?  
 不待作年芳. 봄이 되었을 때 꽃 피우기 기다리지 못하고.

-<11월 중순 부풍에 이르러 매화를 보다(十一月中旬至扶風界見梅花)>

이 시에서 우리는 봄이 오길 기다리지 못하고 서리 내리는 추위 속에 일찍 꽃을 피워버린 매화를 통해 우리는 일찍부터 빼어난 재주를 지녔으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떠돌며 평생을 지낸 시인의 회재불우(懷才不遇)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때도 아닌데 일찍 꽃을 피워버린 매화는 젊은 날 문학적 재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고 허망하게 세월을 보내고만 있는 자신의 모습이다.

定定住天涯, 꿈쩍없이 오랜 세월을 하늘 가에 머물며,  
 依依向物華. 아쉬운 마음으로 봄날의 경물을 바라본다.  
 寒梅最堪恨, 추위 속 매화가 몹시도 한스러운 것은,  
 長作去年花. 언제나 지난해 꽃이 되어버려서라네.

-<매화를 회상하며(憶梅)>

이 시는 이상은이 상처(喪妻)한 후 유중영의 재주(梓州) 막부에 있으며 봄 경치를 맞아 지은 것이다. 한매(寒梅)는 엄동설한에 꽃을 피운 매화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꽃들이 봉오리를 터뜨리는 따뜻한 봄날이 이르렀지만 시인은 지나간 겨울 일찍 꽃을 피워 이미 꽃잎이 모두 저버린 매화를 떠올린다. 한(恨)은 바로 백화(百花)가 만발하는 꽃을 기다리지 못하고 늘 잊혀져버린 꽃이 되고 마는 매화를 원망하는 동시에 고향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 끝에 내몰려 잊혀져가는 고독감을 함축한 말이기도 하다.

柳帶誰能結, 버들가지로 누가 능히 매듭지을 수 있으리오?  
 花房未肯開. 꽃봉오리는 아직 감히 터트리지 않았다네.

空餘雙蝶舞, 부질없이 나 홀로 나비 한 쌍과 함께였구나,  
 竟絕一人來. 결국 한 사람도 오는 이 보이지 않네.  
 半展龍須席, 용수초로 엮은 자리 반쯤 펼치고,  
 輕斟瑪瑙杯. 조심스레 만옥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따르네.  
 年年春不定, 해마다 봄은 일정하지 않은 것을,  
 虛信歲前梅. 헛되이 지난해 핀 매화를 믿었구나.

- <작은 정원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小園獨酌)>

지난 해 일찍 꽃을 피운 매화를 보고 봄이 올 것을 기대한다. 매화가 이미 졌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더디 오고, 술을 마실 벗도 없이 홀로 쓸쓸한 정원에 앉아있다. 마음 둘 곳 없이 외로이 지내는 쓸쓸한 시인의 모습이 시 속에 묻어있다.

2. 詠荷花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고 고운 꽃을 피우는 연꽃은 주변의 환경에 물들지 않고 고결한 모습으로 자라기에 강한 생명력의 근원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또한 연밥에 촘촘히 박힌 연실(蓮實)은 많은 씨앗을 담고 있다고 하여 풍요(豐饒)와 다산(多産)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은의 시 속에 쓰인 연꽃은 더 이상 진흙 속에서도 고결한 자태를 뽐내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연꽃의 형상의 아니라 가을비 오고 난 뒤 말라버린 연꽃으로 표현된다.

樹繞池寬月影多, 나무로 둘러싸인 넓은 연못엔 달그림자 가득하고,  
 村砧搗管隔風蘿. 마을의 다듬이 소리, 피리 소리 바람 따라 드문드문 휘 감긴다.  
 西亭翠被餘香薄, 서쪽 정자의 비취새 수놓인 이불에 남은 향기 얼어져  
 一將愁向敗荷. 밤새도록 수심은 저버린 연잎으로 향한다네.

- <씨늘한 밤(夜冷)>

밤에 홀로 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그림자 바라보며 연꽃가를 거닐면서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피리 소리가 서로 어울려 치량하게 느껴진다.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해보지만 이미 시들어 말라버린 연꽃 위로 설세없이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온갖 정신이 집중되어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다.

竹塢無塵水檻清, 대나무 우거진 땅에 먼지 하나 없고 물가의 정자 맑은  
곳에서,  
相思迢遞隔重城. 서로 그리워하나 겹겹한 성이 가로막혀 있네.  
秋陰不散霜飛晚, 가을 먹구름 흩어지지 않으니 서리 날리는 때 늦는구나,  
留得枯荷聽雨聲. 남아있는 시든 연꽃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들리네.  
-〈낙씨정에 머물며 최옹과 최곤에게 부치다(宿駱氏亭寄懷崔雍崔暉)〉

잠 못 드는 비 내리는 가을밤 홀로 빈 방에 앉아 빗소리를 듣는다. 가을 먹구름[秋陰], 시든 연꽃잎[枯荷], 밤비[夜雨]는 상념에 젖은 나그네에게 있어 고독감과 슬픔을 더욱 부각시키는 경물이다. 그런 중에 들려오는 시든 연꽃잎을 때리는 빗소리, 고요한 밤에 청각적 효과를 통해 작가의 상념은 배가 된다.

### 3. 詠槿花

무궁화는 한 송이 한 송이로 보았을 때는 매일 이른 새벽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 떨어지는 꽃이다. 그러나 새로 뒤따라 피고, 이어 피기 때문에 늦은 봄부터 여름을 거쳐, 서릿발이 높아가는 가을까지 언제나 조금도 줄지 않고 새로운 꽃이 가득 피어있어 오랜 기간 계속 신선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꽃이다. 그러나 이상은은 피고지기를 반복하는 무궁화의 모습에 눈길이 머물기 보다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저버리는 하루살이 꽃과도 같은 형상에만 주목하여 시로 읊었다.

風露淒淒秋景繁, 바람결 이슬은 쓸쓸한 가을날을 재촉하니,  
 可憐榮落在朝昏. 가엾어라, 영화 몰락이 조석 간에 바뀌는구나.  
 未央宮里三千女, 미양궁의 삼천 궁녀,  
 但保紅顏莫保恩. 흥연만은 간직할 수 있어도 임금님 은총은 지속되기  
 어려워.

- <무궁화(槿花)>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저버리는 무궁화 묘사를 통하여 인간사(人間事)의 변화가 매우 빠름을 나타내었다. 한 때 임금의 은총을 입었던 삼천궁녀도 그 은총이 다할 날이 있음을 통해, 자신의 재주도 일찍이 명성을 얻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뛰어난 재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거둬지는 실의(失意)로 크게 고뇌하고 있는 자신의 형상을 기탁했을 뿐 아니라 짧은 인생의 덧없음을 또한 나타내었다.

珠館薰然久, 주관에 향내 피운지 오래고,  
 玉房梳掃餘. 옥방에서 몸단장 마쳤다네.  
 燒蘭才作燭, 난초 기름에 불 부쳐야 겨우 촛불이 되고,  
 鬢錦不成書. 주름이 잡힌 치마에는 글을 쓸 수 없다네.  
 本以亭亭遠, 분시 매우 먼 곳에 있어,  
 翻嫌脈脈疏. 말없이 묵묵히 바라보네.  
 回頭問殘照, 고개 돌려 석양에게 물어보려니,  
 殘照更空虛. 석양이 더욱 공허 하구나.

- <무궁화, 2수(槿花二首)> 둘째 수

이 시에서도 시인의 시선을 끄는 것은 역시 「시들고 피어남이 하나에 서로 섞여있어, 울고 우는 것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sup>24)</sup>는 무궁화의 특징이다. 이것은 바로 변화무상(變化無常)한 벼슬길에서 방황하는 시인 자신의 모습으로, 답답한 마음을 석양에게 물어보고자 하나 바라다 본 석양은 더욱 쓸쓸한 모습을 하고 있어 시인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한다.

24) <무궁화, 2수(槿花二首)> 첫째 수 「殷鮮一相雜, 啼笑兩難分.」

## 4. 詠牡丹

모란은 예로부터 부귀의 기풍을 지닌 꽃의 상징으로 모란을 일컫는 말에는 ‘꽃의 왕[花中王]’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러나 이상은의 시에는 더 이상 부귀나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모란이 아닌, 이미 시들어 있는 모란과 비에 맞아 꽃잎 떨어지는 초라하고 애처로운 모습의 모란이 영물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下苑他年未可追,	곡강에 있던 지난해는 볼 수 없었는데,
西州今日忽相期.	회중에 이른 오늘 문득 모란을 보았네.
水亭暮雨寒猶在,	저물 녘 비로 물가 정자에 한기 여전히 남아,
羅幃春香暖不知.	비단 자리 위의 봄날 향기는 따스함도 모르겠네.
舞蝶殷勤收落蕊,	춤추는 나비는 은근히 떨어진 꽃술 거두려는데,
佳人惆悵臥邊帷.	멀리 휘장 아래로 서글픈 여인인 듯 쓰러져 있네.
章臺街里芳菲伴,	장대로는 버들 향기를 날리고 있겠지만,
且問宮腰損幾枝.	궁녀 허리 같은 버들은 또 얼마나 꺾였을까 묻네!

- <회중의 모란이 비에 지다, 2수(回中牡丹爲雨所敗二首)>첫째 수

浪笑榴花不及春,	석류꽃이 봄 오고도 못 뵈었다고 비웃었으나,
先期零落更愁人.	석류꽃보다 먼저 지니 더욱 슬프게 하네.
玉盤迸淚傷心數,	옥쟁반 같은 모란에 비 내려 상심한 눈물 셀 수 없는데,
錦瑟驚弦破夢頻.	수는 거문고의 빠를 현 소리 같은 빗소리에 꿈 자주 깨네.
萬里重陰非舊圃,	만 리 피진 무거운 구름 아래 모란은 곡강 가의 것 아
	닌데,
一年生意屬流塵.	일 년 중 한번 피는 꽃은 빗물 속의 티끌로 사라지네.
前溪舞罷君回顧,	전계무같이 훑날리던 비 그쳐 그대 돌아보니,
并覺今朝粉態新.	오늘 아침 분단장에 다시 싱그러움을 느끼네.

- <회중의 모란이 비에 지다, 2수(回中牡丹爲雨所敗二首)>둘째 수

이 시는 개성 2년(開成, 837) 경원절도사(經原節度使) 왕무원의 딸과 결혼한 후 장안으로 가서 박학평사과(博學宏詞科)에 응시하였으나 낙제하고,

다시 경주(溇州)로 돌아와 지은 것이다.

첫째 수는 한창 아름답고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어야 할 모란이 비에 젖어 떨어진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가슴에 스미는 상념에 젖게 된다. 이는 바로 재능을 지니고도 급제하지 못하고 실의에 찬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 한 표현으로 의미가 대단히 함축적이다.

둘째 수는 일찍 핀 모란이 비바람을 만나 이미 시들어버렸기에, 그 모습이 늦게 핀 석류꽃의 운명보다 더 비참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만리에 가득 드리워 있는 무거운 구름 속에 있는 쌓여있는 모란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떨어지는 비의 압력을 견뎌낸 모란의 싱그러운 자태를 끌어내어 결코 좌절 속에만 갇혀 생을 끝낼 수 없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봄(시인의 젊은 시절)이 가는 슬픔, 아름다운 것이 쉬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은 이상은 영물시의 주요 내용이 되며, 비바람을 맞고 시들어 떨어지는 꽃잎은 세상의 풍파 속에 시달리며 살아온 시인의 지친 영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의 작품 감상을 통해 시인 내면의 깔려있는 깊은 고독감에 흠뻑 젖어들게 되는 것이다.

#### IV. 생명으로의 갈망

이상은의 붓끝에서 표현된 모든 영물의 대상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며, 심지어는 애처롭기까지 하여 독자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쉬이 접을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상념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이상은 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러 있다.

「이상은의 <금슬>, <벽성>, <성녀사> 등의 시가 무엇에 관한 일을 말한 것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한 구절 한 구절 쪼개어 나에게 해석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의미조차 풀이해 낼 수 없다. 그래도 나는 그것들이 아름답다고 느껴진다. 그것들을 읽고 있노라면 나의 마음에는 일종의 신선



로 지극하다. 그 누구도 가는 봄을 막을 수 없지만 시인은 만발하였던 절정기의 아름다움을 뒤로 하고 시들어 떨어지는 꽃잎을 마주하며 오래도록 아름답게 피었던 봄날의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싶어 하는 생명을 향한 집념을 매우 훌륭하게 표현해 내었다.

## VI. 맺음말

장학송(張學松)의 <李商隱詠物詩的悲劇美><sup>26)</sup>에서 「전대(前代)의 시인과 비교할 때, 이상은 영물시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아름다운 사물이 외부의 압력을 받거나, 인생의 가치 있는 것들이 훼손되는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상은의 시 속에 나타난 비애만을 다루었을 뿐 제목에 쓰인 아름다움[美]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물론 인생의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느낀 절망감으로 인해 이상은의 시에는 슬픈 상념이 가득 묻어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생을 다하는 날까지 그가 자신을 인정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이해하고, 필요로 하고, 또 긍정해 주기를 갈망했다.

따라서 그의 시에는 희망이 꺾이어 좌절을 경험했을지라도 체념하지 않고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며 생을 갈망했던 심리여정이 깊고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수많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 현실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노력이야말로 이상은 시의 참된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이상은은 영물시 뿐 아니라 영사시(詠史詩), 애정시(愛情詩)에도 뛰어난 작품을 남겼는데, 이들 작품 역시 단순한 감상을 넘어 자신이 처한 비통한

26) 「與前代詩人相比，李商隱詠物詩的一個顯著特點，是它表現了美好的事物受摧殘人生有價值的東西遭毀滅的悲劇美。」張學松，〈李商隱詠物詩的悲劇美〉，中國人民大學學報，1996.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시편의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앞으로 시의 제재 범위를 넓혀 이상은 시가 지닌 생명력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그 기초가 될 것이며, 이상은을 단순히 감상주의자라고 알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사조의 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 < 參考文獻 >

- 劉學鍇、余恕誠著, 《李商隱詩歌集解》中華書局, 1988.
- 鄧中龍, 《李商隱詩譯注》岳麓書社, 2000.
- 張采田, 《玉谿生年譜會箋》上海古籍出版社, 1983.
- 葉葱奇疏注, 《李商隱詩集疏注》人民文學出版社, 1985.
- 劉學鍇, 《集評李商隱詩》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2.
- 劉學鍇、余恕誠著 《李商隱》中華書局, 1980.
- 郁賢皓、朱易安著 《李商隱》上海古籍出版, 1985.
- 吳調公, 《李商隱研究》上海古籍出版社, 1982.
- 劉學鍇, 《李商隱詩歌研究》安徽大學出版社, 1998.
- 王蒙、劉學鍇主編, 《李商隱研究論集》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8.
- 董乃斌, 《李商隱傳》陝西人民出版社, 1985.
- 董乃斌, 《李商隱心靈世界》上海古籍出版社, 1992.
- 鍾銘鈞 《李商隱詩傳》中州書畫出版社, 1987.
- 楊柳, 《李商隱評傳》江蘇人民出版社, 1981.
- 朱傑等, 《李商隱和他的詩》臺北: 學生書店, 1982.
- 張清會, <李商隱詠物詩的意象分析>, 《中國詩學》(第四輯) 南京大學出版社, 1995.
- 胡青娜, <淡李商隱詠物詩的寄託>, 《龍岩師專校報》, 2001.
- 張學松, <李商隱詠物詩的悲劇美>, 《中國人民大學學報》, 1996.
- 이종진, 《李商隱詩選》 문이재, 2002.

- 하운청, 《李商隱詩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5.  
서봉성, 《李義山詩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4.  
이지운, 《李商隱愛情詩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5.  
이지운, 《李商隱七言絕句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5.  
김준연, 《李商隱詠史詩研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6.  
정옥근, 《李商隱詩研究》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3.  
한기숙, 《李商隱詩研究》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2.  
이지운, <李商隱詠物詩試論> 중국어문학회, 《중국어문학지》, 2005.

### <中文提要>

李商隱是中國晚唐時期極具代表性的詩人，對李商隱詩歌的研究也始終是唐詩研究中的重點。然而，目前學者研究對象基本上都集中在其愛情詩、政治詩以及詠史詩作上，而較少關注到他的詠物詩。實際上，李商隱創作了大量的詠物詩，特別是以花為詠誦對象的詠物詩作最多。這在唐代詩人中并不多見。詠物詩構成了李商隱詩作中重要的組成部分。

李商隱詩歌中的人生感慨就是詩人痛苦心靈的投射。沒落衰薄的家庭、沈淪下潦的一生使詩人的心靈壓抑，內心迷茫感傷。詩人的親人、妻子相繼離他而去，詩人的幕主、以及在仕途上志趣相投的知己，在與他結識後不久也連接被貶或死去。這使得詩人常常以悲劇的眼光和心態來看待人生、觀察事物，很多作品常常給人傷感低沉、憂郁悲涼的印象。

題材的運用與詩人的心境和情緒的表達有着十分密切的關係。由於詩人苦悶和淒涼的心境，李商隱大量運用了細小纖柔的題材。如春前後零落的梅花、秋後枯敗的荷花、朝開暮萎的槿花、為雨所敗的牡丹等。托物詠懷詩是李商隱詠物詩內容的一個重要方面。他的詠物詩將柔弱事物易逝性與自己的悲劇人生完美地結合在一起，以落花寄託春逝的悲傷，象徵着詩人飄零身世感和年華易逝的悲慨。他善於關注這些微小事物的生存環境，通過象徵性的筆法，寄託自己

的悲慨。

個人遭遇的不幸以及，又身處將要衰滅的晚唐時代，詩人在這種情況下很容易形成頹喪苦悶、傷春悲秋的性格，但這并不能概括李商隱的全部，從他的作品中，我們可以感到一種深沉執着的力量和對生命的渴望。生命的脆弱不屈的精神，構成了李商隱詠物詩的審美價值。

주제어 : 李商隱, 詠物詩, 花, 悲劇, 生命力

K C I